

## 펌프 산업계의 동향

이봉주\*

### 1. 서 론

세계적으로 볼 때에, 1998년은 아시아의 경제적 혼란, 주식 시장의 변동, 환율 변동, 러시아의 재정 위기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한 해였는데, 펌프 산업은 어느 정도 안정을 누렸다고 할 수 있다. 몇몇 업체들은 나쁜 환경 여건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의 향상과 시장 점유율의 증가를 이루기까지 하였다.

1997년 ITT가 Goulds Pumps를 인수함으로써 절정을 이루었던 기업 인수의 열풍은 1998년에 들어와서도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대신 그 양태가 틈새 기업 인수로 변화하고 있다.

많은 가족 소유의 소기업들은, 더 큰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의 증가와 글로벌화의 증대를 위하여 그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에 대항하여 독립적으로 살아 남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특히 독일과 영국의 엔지니어링 분야가 용감히 맞서 싸우고 있지만 토착 기업들의 기초가 점점 잠식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Flowserve, Pentair, KSB 등은 기능과 기업군을 재정비, 재배치 또는 재조직하여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가고 있고, 펌프 산업계의 모든 회사들이 원가 절감, 간접 비용 저감 등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펌프 회사들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강화되어 고객들도 이를 점차 인

식하게 되었다.

펌프 규격의 양대 산맥인 미국과 유럽의 국제 규격화를 위한 노력도 결실을 거두어 가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면, API 610 8th Edition이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ISO/DIS 13709 (Centrifugal pumps for petroleum, heavy-duty chemical, and gas industry services)로 채택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우리 국내 사정은 어떠했는가?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로 IMF의 지원을 받게 된 당사국이었으므로, 국가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거의 모든 회사들이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어서 매출액과 이익 감소 등 큰 타격을 입었다. 국내 펌프 회사들 중에서 인수 합병의 대상이 될 만한 제조회사가 없기 때문인지 인수 합병의 열풍은 불지 않았고 문을 닫은 회사들이 좀 있었지만 모든 면에서 위에서 말한 외국의 경우와는 그 차원이 사뭇 달랐다고 할 수 있다.

펌프 산업계는 현재의 열악한 경제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것도 큰 과제이지만, 코 앞에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화 시대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전략적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제, 국가적으로도 ISO/TC 115의 P 회원으로 활동함을 계기로 우리나라 펌프 산업과 기술에 관련된 사람들이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여야 하는데, 이의 견인차 역할을 유체기계공업학회 펌프 분과가 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 (주)한돌펌프, 본 학회 펌프분과 위원장